

중전기기 수출업체 실태 조사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98. 10. 13~31까지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중전기기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방문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내수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수출을 유도함으로써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11개사의 발전기, 전동기 등 10개 품목에 대해 수출주력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조사된 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애로 및 건의사항	확인 내용 및 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중전기기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전기연구소(KERI)가 외국 공인시험기관과의 인증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국내 수출업체가 외국 시험기관의 시험을 필하는 과정에서 시간, 경제적 비용 등이 추가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며, ○ 한국전기연구소의 해외홍보자료 등이 부족하여 외국 입찰 기관등에의 인지도가 낮음 ○ 해외 수출상담 및 수주받기 위한 출장시 현지 공관들의 수출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업체가 외국에 수출시 제품 신뢰성 측면에서 자국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KEMA, CESI 등 세계적인 유수기관의 성적서까지는 인정하고 있음. 최근 한국전기연구소가 “국제 과학기술협력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일본전력중앙연구소를 비롯한 8개 국가 14개 기관과의 협력 협정을 맺는 등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조만간 상호인증협정이 성사되어 상호인증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 한국전기연구소의 해외 홍보용 자료도 수출업체가 해외에서 국내 시험검사 수준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토록 조치하였음. ○ 해외 현지 정부 기관들의 수출업무 협조건에 대하여는 전기공업진흥회를 통해 월별 및 분기별로 중전기기 업체의 해외 출장 계획을 파악하여 동 계획을 외교통상부로 통보하여 해외 현지공관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

애로 및 건의사항	확인 내용 및 조치 계획
<p>○ 발전기 수출시 권선(coil) 형태로 사용되는 동(Cu)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을 때 발전기에 소요되는 동(Cu)의 “기준 소요량 고시” 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매건 관세환급을 위해 소요량 확인절차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준 소요량 고시” 대상물품에 포함 요망.</p> <p>○ (주)성신이 거래하고 있는 제일은행 무역금융에 대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어 자금부담이 되고 있음.</p> <p>○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종합상사와의 정기적인 교류협의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망.</p>	<p>○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3-2조(기준 소요량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될 때 국립기술품질원이 수출업체의 신청을 받아 검토후 “기준 소요량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p> <p>○ 국립기술품질원 확인결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이 신청받아 검토후 국립기술품질원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보국전기공업(주)로 하여금 관할 “기준 소요량 고시” 기관인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에 발전기에 소요되는 동(Cu)을 동 고시 대상 물품을 신청하도록 조치 하였음. (현재 동사가 단위소요량 책정자료 준비중에 있음).</p> <p>○ 확인결과 제일은행을 포함한 일반 시중은행들이 적용하는 무역금융 적용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P/R)에 거래회사별 신용평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당해 업체의 적용금리와 타 은행과의 금리 차이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p> <p>— 주요 은행별 무역금융 적용금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은행 : 9.75%(P/R)+0.0%~5.5% • 국민은행 : 9.95%(P/R)+0.0%~4.5% • 제일은행 : 10.25%(P/R)+0.0%~4.5% <p>○ 다만 시중은행중 최근 제일은행이 처한 상황으로 보아 타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p> <p>○ 전기공업진흥회에서 종합상사(중전기기 담당)을 방문. 중소기업 수출지원방법 모색 및 협의회 구성을 위한 방안 논의.</p>

애로 및 건의사항	확인 내용 및 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마케팅을 전담하는 해외 현지지사가 필수적이거나 중소기업 자금여력상 현지지사 사무소 유지가 어려움 ○ 작년 하반기 이후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국제 입찰시 BID BOND 및 PERFORMANCE BOND 발행 어려움으로 국제입찰 참여 제한. ○ 중동지역 일부 국가들이 수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외에 자국 대사(영사)관의 원산지 확인을 별도로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등 부대경비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중전기기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한전이 수요로 하는 기종 위주로 되어 있어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못함. ○ 수출 사업화에 기술개발자금 지원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중 전기진흥회 주관으로 종합상사 및 중소기업과의 협의회 구성할 계획. (참여기관 : 전기진흥회, 대기업 종합상사 및 중소기업체) ○ IMF체제이후 우리나라 은행의 신인도 하락과 외국 입찰기관의 자국내 은행 배려 차원에서 입찰 및 계약시 자국은행 발행 BOND를 인정하는 추세임.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건설공사 수주시 B/P BOND 발급등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한 BOND 발행금액의 95%까지 보상하는 수출보증보험포괄보험제도(보험료율 : 매 3개월 0.05%)에 전력기자재(변압기, 차단기, 전선 등)도 포함토록 하며, 해당 은행이 보증하는 5%에 대한 담보여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전기진흥회에서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외에 자국 대사(영사)관의 원산지 확인을 요구하는 국가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동 사항을 개선토록 요청할 방침. ○ 한전 및 한국전기연구소로 하여금 세계 중전기기 부문 기술개발동향을 신속히 파악 국내 제조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채널 마련. - 전기공업진흥회에서 개최되는 월별, 분기별 수출촉진대책회의에 전기연구소가 참여하여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방법 마련. ○ WTO 가입에 따라 정부출연금 성격의 기술개발자금을 업계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	확인 내용 및 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입찰정보 수집 신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KOTRA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입찰 정보는 시기적 측면에서 실질적 도움이 못되는 실정임. ○ 국내 업체간의 과당경쟁 방지대책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내수경기 경색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국내 업체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국내 제품의 이미지를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한국전기연구소의 시험설비 부족할 뿐 아니라 대외홍보 및 대 업체 서비스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성격이 아닌 용자자금(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자금, 산기반기금 등)을 수출사업화에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자원부내 산업기술국을 통해 업종별 취급기관에 수출사업화 지원을 강화토록 공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전기 분야에 대한 국제입찰정보를 공동으로 입수하여 관련업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업진흥회에서 총괄하고 희망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정보 제공료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영국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연간 이용료는 약 3천만원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전기공업진흥회내에 설치된 SF₆ 가스 개폐기 해외입찰 자율조정협의회의 운용을 강화하고 수시로 품목별 과당방지 홍보활동 강화토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자부, 전기진흥회 수출예로사항 점검반이 10. 29(목) 한국전기연구소(창원)에 방문 업계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요청을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기연구소에서도 최근 대외홍보를 위해 국제협력강화방안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예로 및 건의사항	확인 내용 및 조치 계획
<p>○ 전기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현행 선불제로 되어 있는 시험검사 수수료를 후불제로 조정 요청.</p> <p>○ 광섬유·광케이블(Optical fiber, cable)을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유품목에서 제외 및 수출허가절차 간소화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섬유 같은 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사후에 받도록 보완하거나 - 또는 “최종 수하인 진술서”라도 허가후 제출할 수 있는 방법과 - 장기적으로는 광케이블 또는 광섬유만이라도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대 업계 시험업무에 있어서도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시험절차를 위해 자체 교육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시험설비 확보는 현재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 산기반조성사업인 “핵심전기기술인력양성사업, 전기기기 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동 연구소의 시험설비능력을 확보중에 있음. <p>○ 전기연구소 확인결과 당초에는 후불제였으나 시험검사 결과, 일부 불합격판정 업체가 시험결과성적서 수령 포기과 아울러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선불제로 조정 한 사례가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기연구소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후 시험수수료에 대한 선·후불제 조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p>○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대상물품 추가 및 삭제 검토는 매년 검토, 공고하고 있어, 차기 개정 검토시 동 물품에 대한 수출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할 계획(무역정책심의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물품 수출은 세관 통관시 정부 허가서 없이는 통관 불가하여 현행제도상 사후허가는 어려움. - “최종 수하인 진술서”에 대한 건의도 동 제도가 최종 수요자를 확인하는 목적인바 현실적으로 허용 불가.